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15. 1. 12(월) 16:00~18:0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6명)	서혁(교무처장), 석인선(학생처장), 이외숙(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유혜련(외부전문가), 정새미(대학원 대표)		
불참자 (3명)	김미환(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우지수(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임재희(건강과학대학 공동대표)		
안건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안) 심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은 총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6명 참석하여 성원이 됨을 확인한 후, 2015년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시작하다.</p>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지난 1, 2차 회의에 불참한 학생 위원을 위해 지난 회의내용과 합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추가 문의가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 위원은 외부 전문가 선임에 대한 학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지난해 회의에서 위원장이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이번 회의도 사전연락 없이 통보받은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다. - 고등교육법에는 학생 위원의 최소 구성비를 지정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위원회 구성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학생 대표가 회의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다. - 회의 일정은 모든 위원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1차 회의에 대해서만 관례적으로 일정을 정하여 전달하였고, 이후 일정은 회의 시간 중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학생 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학생들이 참여하더라도 과반수 의결로 결 		

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고, 재정적 전문지식이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교직원 위원의 경우에도 학생 위원들과 동일하게 회의 참석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는 위원들이 있다고 말하고, 학교 회계는 기업 회계와 달리 학교 회계의 특이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보다는 사전에 예산팀에게 재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다.

- 학생 위원은 지난해 학교와 학생 측이 서기를 1명씩 두고 번갈아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니 다음 회의 때에는 학생 측에서 서기를 들 것을 요청하다.

- 1차 회의에서 학생 위원들이 불참하여 올해는 예산팀에서 1명의 서기를 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합의했음을 설명하고, 회의록 작성 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모든 위원들이 1, 2차 회의록의 내용을 공유한 후,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시하기로 하다.

- 위원장은 2015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고 재무처의 설명을 요구하다.

- 재무처는 2015학년도 예산(안)의 각 수입, 지출 항목을 설명하다.

- 2015년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등 경상적 운영비와 각 부서의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운영비 예산은 운영수입 대비 341억이 부족한 3,419억으로 편성하였으나, 간축재정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운영비를 10%씩 감축하고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여 105억을 감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6억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

- 마스터플랜에 따른 기숙사신축, 의과대학신축 등을 포함한 토지·건축비는 1,099억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기금을 통하여 충당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질의하다.
-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본교뿐 아니라 모든 사립대학들이 처한 현황이라 설명하다. 본교는 2009년 이후 6년 동안 등록금을 포함한 운영수입이 338억이 증가한 반면 운영지출은 792억이 증가하여 지출 규모가 수입 증가분을 훨씬 상회하였음을 설명하다.
- 인건비 감소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다.
- 연차에 의한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증가로 초과강의료 및 시간강의료가 감소되었고, 명예퇴직금 감축 등 퇴직금의 예산도 일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다.
-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감축하였다고 하였는데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다.
- 부서운영비와 관련된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행사비, 회의비 등의 비용은 감소하였으나, 외부업체와의 협상에 따라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미화, 경비, 시설 등의 용역비와 전기·수도료 등은 증가하여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다.
- 연구학생경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다.
-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 감축으로 기타학생경비와 기자재 등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학생들의 교외장학금 증가뿐 아니라 교내장학금을 약 20억 증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을 설명하다.
- 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II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다.
- 학교는 국가장학금 II를 지원받아 학생들의 장학금을 확충해 주고 기타 재정지원사업도 고려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만큼 점점 증가하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자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을 설명하다.
-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건축비 예산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질의

하다.

-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숙사 신축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도 반드시 학교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고, 건축기금을 활용한 장기발전적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학생 위원은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를 감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핵심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적인 수요가 없거나 사라진 기관은 조정하는 등 먼저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다.

- 학교도 구조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교육기관인 학교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설립,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임을 설명하다.

- 학생 위원은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학원 선택시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말하고, 대학원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생계형 장학금 확충과 대학원 연구지원센터 활성화, 학교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을 제안하다.

- 교직원 위원은 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학교의 재정한도 내에서 활동성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다.

- 학생 위원은 학교 재정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법적 최대치인 2.4%를 인상하기 보다는 학교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조정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하다.

-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4차 회의에서 등록금 및 예산(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 폐회

위원장은 4차 위원회를 1월 15일(목) 16시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5년 1월 12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서 혁	서혁	위 원	석인선	석인선
	위 원	이외숙	이외숙	위 원	서미옥	서미옥
	위 원	김미환	불참	위 원	우지수	불참
	위 원	임재희	불참	위 원	정새미	정새미
	위 원	유혜련	유혜련			
작 성 자	예산팀 이 은 정 (인)					